

추억의 여운이 남는 곳 구림 鳩林



대동계사(大洞契舍)



고죽관(孤竹館)



국암사(國巖祠)



죽정서원(竹亭書院)



조씨종택(曹氏宗宅)



낭호관(朗湖館)
농촌체험관(472-0939)

| 교통편 안내 Transportation |



고속버스 Expressway Bus

영암 ↔ 서울(5시간 소요/1일 2회)
광주 ↔ 서울(3시간 30분 소요/5~40분 간격)

광주 ↔ 부산(3시간 30분 소요/20~50분 간격)
광주 ↔ 대구(3시간 30분 소요/40~60분 간격)

시외버스 Intercity Bus

영암 ↔ 광주(1시간 소요/20분 간격)
영암 ↔ 목포(40분 소요/20분 간격)

승용차 · 관광버스 Car · Tourist Bus

영암 ↔ 광주 ↔ 서울(5시간 소요)
영암 ↔ 목포 ↔ 서해안고속도로 ↔ 서울(5시간 소요)

항공 Air

광주 ↔ 서울(55분 소요)
광주 ↔ 제주(45분 소요)
무안 ↔ 서울(55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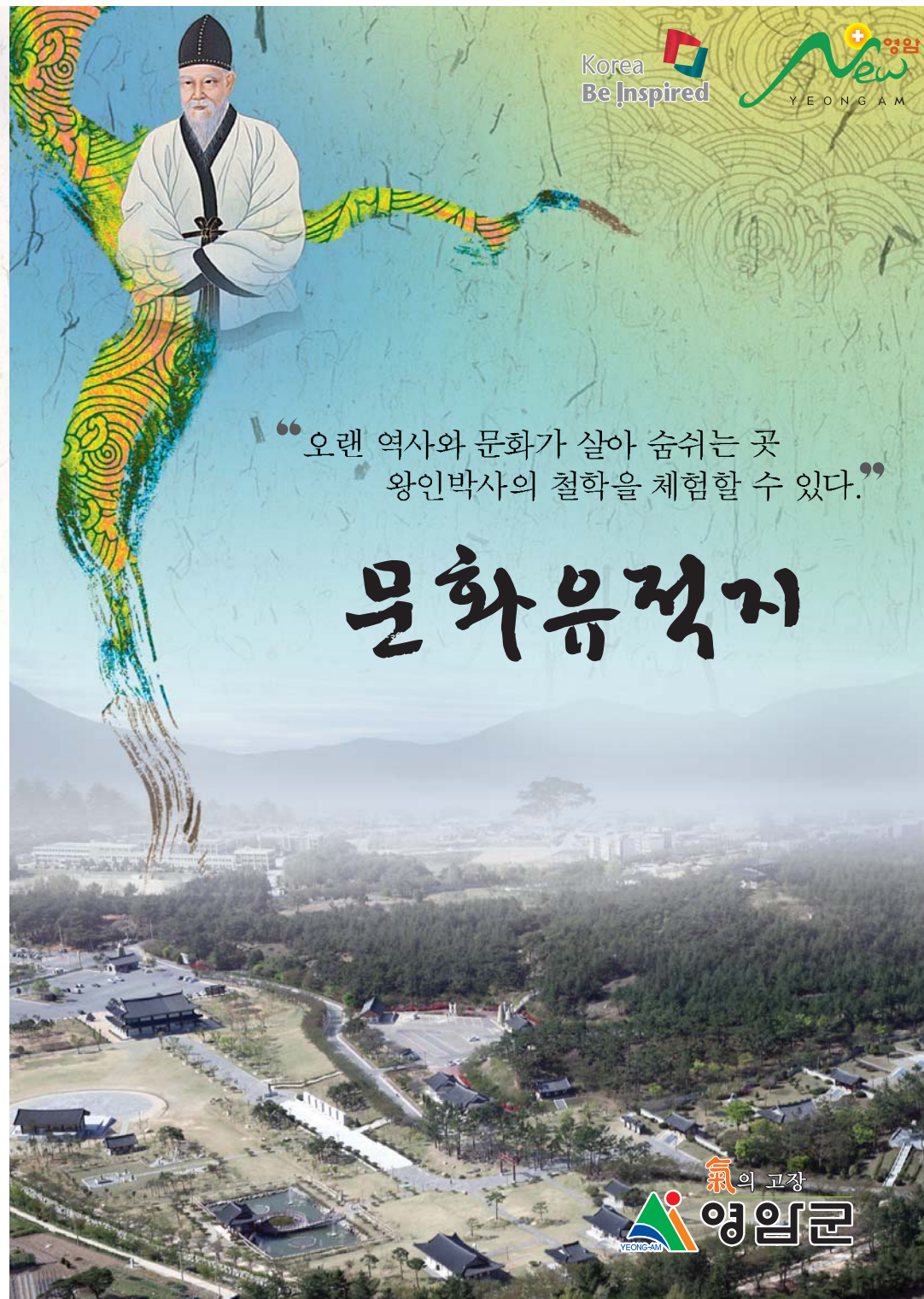
무안국제공항 061) 455-2114
아시아나항공 1588-8000
대한항공 1588-2001

고속철도 KTX

나주 ↔ 용산(3시간 소요/1일 4회)
광주 ↔ 용산(2시간 50분 소요/1일 9회)

목포 ↔ 용산(3시간 20분 소요/1일 9회)
코레일 안내센터 1544-7788/1588-7788

- 왕인박 사유적지 ☎ 061) 470-2560 팩스 061) 470-2593
- 마한문화공원 ☎ 061) 470-2790 팩스 061) 470-2717
- 도기박물관 ☎ 061) 470-2764 팩스 061) 470-2766



Korea
Be Inspired

New
영암
YEONGAM

“오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왕인박사의 철학을 체험할 수 있다.”

문화유적지

氣의 고장
영암군

“국중 영산인 월출산의 정기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월출산 큰바위 얼굴

아름다운 국립공원 월출산(1988년 국립공원 제20호 지정)과 호남의 젖줄 영산강이 에워싼 상서로운 땅 영암!! 고대부터 고려까지 한·중·일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유서 깊은 고장답게 왕인박사와 도선국사 등 수많은 인물이 태어난 고장입니다.

특히, 1600년전 일본 응신천황의 초청으로 도공, 야공, 직조공과 함께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아스카문화에 꽃 피우게 한 위대한 왕인박사께서 태어난 고장이기도 합니다.

“국중 영산인 월출산의 정기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국립공원 월출산의 정기가 서려있는 왕인박사유적지와 고대 영산강 문화의 거점, 마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마한문화공원 그리고 도기박물관이 있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 답사 및 관람문의 | •위치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 18번지 •문의 : 061) 470-2560

월출산 국립공원의 서쪽 문필봉(文筆峰) 기슭에 자리 잡은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의 자취를 복원해 놓은 곳이다. 왕인박사는 일본 응신천황(應神天皇)의 초청으로 논어(論語) 10 권과 천자문(千字文) 1 권을 가지고 건너가 한자(漢字)와 학문(學問)을 처음으로 일본(日本)에 전해준 성현(聖賢)이다. 그의 해박한 학식(學識)으로 『學問의 神』으로 숭배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일본(日本)의 여러 사서(史書)에 기록되어 있다.

왕인박사는 일본으로 건너 간 기술자들과 함께 도공기술, 직조기술 등 여러가지 기술을 전하여 일본 아스카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하였다. 이같은 사실 때문에 왕인박사유적지를 찾는 일본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적지에서 문산재, 왕인석상에 이르는 기(氣)산책로는 옛 선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왕인사당(王仁祠堂)

왕인박사의 위패(位牌)와 영정(影幀)이 봉안(奉安)된 사당(祠堂), 백제문(百濟門), 학이문(鶴而門), 왕인박사 탄생(誕生), 수학(修學), 도일(渡日), 학문전수도(學問傳受圖) 등 기록화를 전시하고 있다.



성천(聖泉)

왕인박사가 마셨던 우물이며 이 물을 마시고 목욕하면 성인(聖人)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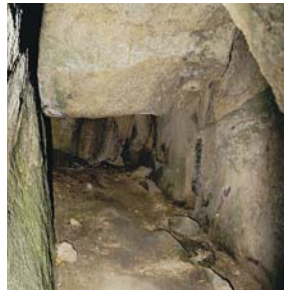


왕인박사유적지



왕인석상(王仁石像)

월출산 주지봉 아래 왕인박사의 후덕을 기리기 위해 후대인이 조각한 석상이다.
높이 257cm인 이 석상은 도포(道袍) 차림으로 멀리 영암만(靈巖灣)을 향하고 있다.



책굴(冊窟)

박사께서 홀로 조용히 공부(工夫)하셨던 석굴(石窟)로서 문산재에서 50m 떨어진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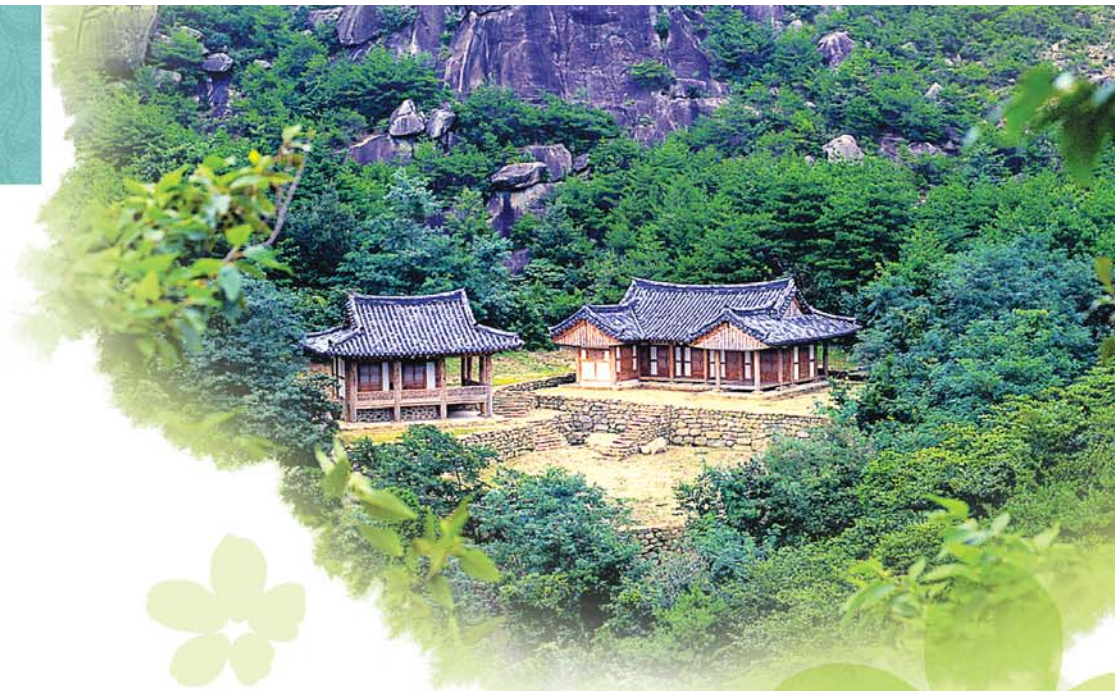
탄생지(誕生址)

왕인박사가 탄생한 택지(宅地)로서 지금도 생가(生家)의 초석(礎石)이 남아있다.



영월관(靈月館)

왕인박사기념전시관 1층에는 1·2전시실이 있고 2층에는 왕인박사 상설전시관 및 영상관이 있다.



문산재·양사재(文山齋·養士齋)

박사께서 동료들과 함께 수학(修學)하고 담론(談論)을 나누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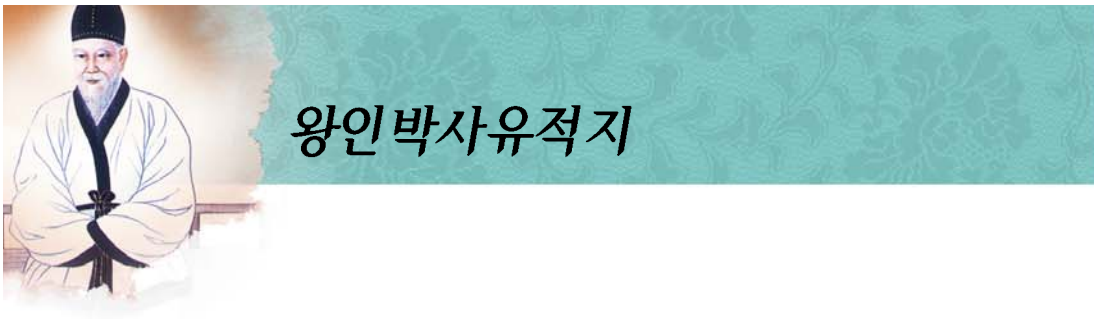
왕인수석전시관(王仁壽石展示館)

영암출신 故 박찬대씨의 수석 600여점을 기증(寄贈)받아 전시하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출향인이 기증한 애향수석 전시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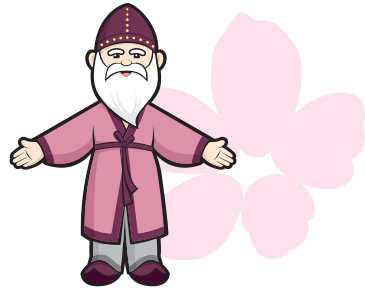


왕인학당(王仁學堂)

왕인박사의 교육 근본인 인성(人性)과 예절(禮節)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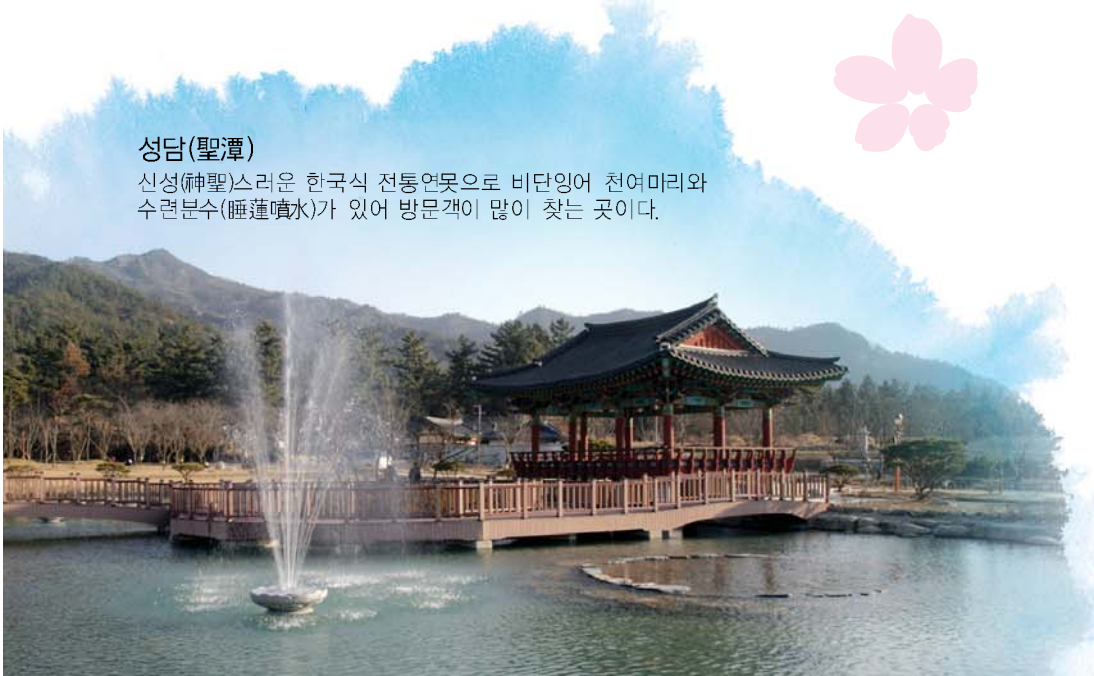


왕인박사유적지



백제왕인박사유허비(百濟王仁博士遺墟碑)

왕인박사는 일본문화의 원조로서 백제가 낳은 성인이다. 왕인박사현장협회에서는 이같은 위덕(偉德)을 기리기 위해 1976. 11. 11 탄생지인 성기동에 유허비를 세웠다.



성담(聖潭)

신성(神聖)스러운 한국식 전통언못으로 비단잉어 천여마리와 수련분수(睡蓮噴水)가 있어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상대포(上臺浦)

고대 국제 무역항으로 박사가 고향산전을 뒤돌아 보며 이곳 상대포구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천인천자문(千人千字文)

5세기초 천자문을 비롯한 백제의 선진문물을 일본에 전하여 고대 아스카 문화를 꽃피워 한·일 문화교류사를 빛냈던 영암 출신 왕인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박사께서 남겨주신 "소통과 상상"의 정신을 널리 알려 세계평화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 한·중·일 명사 1000명이 육필(肉筆)로 천자문을 한자씩 심혈을 기울여 쓰고, 이를 영암의 석공이 돌에 새겨 만든 왕인상징 조형물이다.



“고대 영산강 문화교류의 거점” 마한문화공원

마한문화공원은 기원전 3~2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말~6세기초에 걸쳐 우리나라 (경기, 충청, 전라)에 분포되어 있던 마한의 실체를 웅관고분과 함께 비교 이해함으로써 영산강유역의 독자성이 가득한 고대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가꾸어진 역사 테마 공원이다.

공원은 크게 외형을 웅관의 형상으로 이미지화 한 전시관과 고분탐사관, 전망대, 남해신사, 농경 체험장, 국토미니어처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은 마한역사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영상실과 마한의 영역변화를 축소 제작한 모형, 삼한의 신을 모시던 장소인 소도를 상징화한 홀 등이 있으며, 웅관고분 내부의 부장품과 시신의 매장형태를 모형으로 연출하여 영산강 유역 웅관고분의 매장 풍습을 살필 수 있는 고분탐사관 몽전과 영산강 물줄기와 함께 무안과 나주, 영암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남해망루가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현종(1011년)때부터 국제(國祭)로서 해신제를 지냈던 남해신사(南海神祠)는 발굴조사 후 신당과 내삼문을 복원하여 매년 영암군과 남해신사제례보존위원회 주관으로 해신제를 올리고 있다.

■ 남해신사(南海神祠)/전라남도 기념물 제97호

남해신사는 강원도 동해의 동해묘(東海廟)와 황해도 풍천의 서해단(西海壇)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신제를 지내던 곳이다.

이곳은 고려 현종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군으로 침입하자 현종이 이곳(당시 나주)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다. 그날 밤 꿈에 백발의 수신이 나타나 몽탄으로 피하라는 암시를 주자 현종은 즉시 신하를 이끌고 피신하여 옥체를 구하고 종묘사직을 보전(保全)하였다고 한다. 후에 현종은 자신을 도와준 꿈속의 백발 수신을 위해 남해포에 당을 짓게 하고 인근 6개 고을(나주, 영암, 해남, 강진, 영광, 함평) 수령들로 하여금 춘추에 걸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고 한다.

■ 찾아오시는 길



♣ 마한문화공원 <http://mahan.yeongam.go.kr>
전남 영암군 시종면 옥아리 940-1
TEL 061-470-2790, 2791
FAX 061-470-2717

♣ 버스편

- 광주 → 영암터미널 → 시종터미널 → 도보 30분
- 목포 → 영암터미널 → 시종터미널 → 도보 30분

♣ 자가용

- 광주 → 신북터미널(지방도 820) → 시종터미널 → 마한문화공원
- 목포 → 나주 동강(지방도 49) → 나주 공산(지방도 801) → 영암시종터미널 → 마한문화공원



■ 월지관(月支館)

웅관고분을 형상화한 전시관으로 마한역사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영상실과 사무실이 있다.

■ 남북초당(휴게마당)

관람객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뜻으로 남북초당이라고 하였다. 가운데는 한반도 모양의 분수가 있어 운치를 자아낸다.

■ 몽전(夢殿)

몽전은 남해 해신이 현종에게 준 암시를 우리 영암군민에게도 주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이름지었다. 내동리 초분굴 고분의 발굴과정과 우리나라 묘제의 변천을 소개하고 있다.

■ 남해망루(南海望樓)

남해망루에서는 삼포강 물줄기가 한 눈에 들어오며 멀리 월출산과 무안, 몽탄, 나주 동강 등이 바라다 보인다.

■ 국토미니어처 연못, 레일바이크

우리나라 국토를 축소하여 조성한 미니어처 연못과 공원 주변을 한바퀴 돌아볼 수 있는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어 있다.



영암도기박물관

|답사 및 관람문의| • 위치 :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354 • 문의 : (061) 470-2764



이곳은 고대 영산강 유역의 도자문화유산과 통일신라시대 구림마을의 도기생산 역사를 보존하면서 한국도기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전승·연구·개발·교육하는 공간이다.



■ 상설전시실 (1층)
■ 현대도자실 (2층)



■ 하정웅컬렉션실 (3층)
■ 명품판매장 (1층)



영암도기박물관



영암도기체험

도기박물관에서는 황토를 이용한 손빚기, 핸드페인팅, 일일몰레체험 등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림도기가마터

구림도기가마터는 동구림리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서구림리 신흥동까지 위치하여 당시 왕인박사께서 국제 무역항인 상대포를 통해 그 당시 도공 기술을 일본에 전한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이화여대박물관 발굴) 영암의 질 좋은 점토와 땀감, 그리고 서남해안과 연결되는 8~9세기 대규모 도기제작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시유도기(施釉陶器)가마터이다.

가마구조는 아래쪽에서 경사면을 이용해 굴을 파고 들어간 반 지하식 단실가마로 요상평면은 일부분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독사머리 형태이다.

이곳에 출품된 도기들은 사각편병, 유병, 단지, 시루 등 주로 생활용기이다.



사적 제338호

영암의 고대 역사 문화 연표

논어배우기 광장

선사시대(先史時代)	삼한시대 Ⅱ 마한(馬韓)	삼국시대(三國時代)
구석기 (B.C. 500000~B.C. 8000) 삼호읍 서호리 송죽정, 군서면 도장리 장사, 도포면 수산리 조감마을, 시종면 신헌리 우암· 남해포·금지리 송내 등 신석기 (B.C. 8000~B.C. 1000)	청동기 (B.C. 2000~B.C. 300) - 서호면 장천리 선사주거지 초기철기시대 (B.C. 300~0) - 영암 출토 청동거푸집 (송실대학교박물관 소장) 원삼국시대(0~A.D. 300) - 미암면 선황리 주거지·옹관묘	고구려(B.C. 37~A.D. 668) 신라(B.C. 57~A.D. 676) 가야 (A.D. 42~A.D. 562) 백 제(B.C. 18~A.D. 660) - 왕인박사 渡日(A.D. 405) - 시종면 옥아리 옹관고분 만수리 옹관고분 내동리 옹관고분 장 동 옹관고분 자라봉 옹관고분



청동도끼거푸집(銅斧鑄范)
영암출토, 초기 철기시대
국보 제231호
송실대학교박물관 소장



시종면 옥아리 고분군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0호



왕인박사유적지

■ 子曰：學而時習之，不亦說乎？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논어 제1편 학이 1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워 때에 맞추어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뜻을 같이 하는 자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배우는 사람의 기쁨과 보람을 말하고 있다. 스승에게 배운 것을 때에 맞게 익힌다면 자기향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스승 아래에서 벗들과 학문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 子曰：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논어 제2편 위정 15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맹목적으로 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져 위태롭다.

주입식으로 배우기만 하여 독자적인 창의력으로 사색이나 연구하는 자세가 없다면 이치에 어둡게 된다. 이에 반하여 사색에만 의존하며 독서를 통한 폭넓은 지식의 수용이 없을 경우 자신이 만든 편견과 독단의 울타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배움과 사색은 늘 병행해야 한다.

■ 子曰：由！誨女知之乎！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是知也。

(논어 제2편 위정 17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야! 내 너에게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 子曰：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논어 제2편 위정 11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것을 온양(발효)하여 새것을 만들어 낼 줄 알면, 능히 남의 스승이 될 만하다.

어제 없는 오늘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옛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이와 같이 고전과 전통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습득한 사람이라면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